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15년의 변화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진정한 한국인의 조건	조사 연도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모름/무응답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것	2005	81.9	17.7	0.4
	2010	87.7	12.2	0.1
	2015	87.9	12.0	0
	2020	89.7	10.3	0
대한민국의 국적을 유지하는 것	2005	88.2	11.1	0.7
	2010	89.4	10.5	0.1
	2015	92.8	7.3	0
	2020	95.2	4.8	0
생애 대부분을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	2005	64.6	34.7	0.7
	2010	78.2	21.5	0.3
	2015	75.3	2.8	0
	2020	80.8	18.9	0.3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	2005	87.0	12.6	0.4
	2010	87.8	12.2	0
	2015	86.2	13.7	0
	2020	91.8	8.0	0.2
대한민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따르는 것	2005	77.5	20.6	1.9
	2010	87.3	12.4	0.3
	2015	88.4	11.6	0
	2020	94.3	5.6	0.1
한국인의 혈통을 가지는 것	2005	80.9	18.3	0.8
	2010	84.1	15.4	0.5
	2015	82.6	17.4	0
	2020	81.1	18.6	0.3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고 전통과 관습을 따르는 것	2005	80.9	18.3	0.8
	2010	85.9	14.0	0.1
	2015	86.0	14.0	0
	2020	89.4	10.5	0.1

- 지난 20년 동안 전반적으로 한국인의 정체성 조건이 강화되어 왔다. (2005 → 2020)
-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것 : 81.9 → 89.7
- 대한민국의 국적을 유지하는 것 : 88.2 → 95.2
- 생애 대부분을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 : 64.6 → 80.8
-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 : 87.0 → 91.8
- 대한민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따르는 것 : 77.5 → 94.3
- 한국인의 혈통을 가지는 것 : 80.9 → 81.1 *
-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고 전통과 관습을 따르는 것 : 80.9 → 89.4
- 국적 유지, 정치제도와 법 준수 등 정치적 차원의 정체성이 특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한국에서 산다는 것의 의미는 15년 사이 16.2% 증가했다.

구분	연도	완전 남이다	남에 가깝다	대한민국 국민에 가깝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
탈북자	2010	5.5	23.2	44.2	27.2
	2015	8.3	24.8	50.1	16.8
	2020	8.0	31.1	51.4	9.5
이주 노동자	2010	13.1	48.3	31.1	7.5
	2015	21.3	42.2	30.8	5.7
	2020	18.6	52.5	26.7	2.1
결혼 이민자	2010	5.5	24.0	45.7	24.8
	2015	7.4	26.9	52.4	13.3
	2020	9.7	33.6	48.4	8.1
국제 결혼 가정 자녀	2010	2.5	16.3	45.2	36.0
	2015	6.1	18.3	50.8	24.9
	2020	6.4	26.0	50.2	17.1
조선족	2010	5.8	33.9	42.3	18.0
	2015	13.1	41.6	34.7	10.6
	2020	12.9	47.1	36.8	3.3
북한 주민	2020	13.5	46.7	35.0	4.9

- 우리 사회의 외부 출신 구성인들에 대한 배타성이 커졌다.
 - 대한민국 국민에 가깝다 + 대한민국 국민이다 (2010→2015→2020)
- 탈북자 71.4 → 66.9 → 61.3
- 이주노동자 38.6→ 36.5 → 28.8
- 결혼 이민자 70.5 → 64.7 → 56.5
- 국제결혼 가정 자녀 81.2 → 75.7 → 67.3
- 조선족 60.3 → 45.3 → 40.1
- 조선족에 대한 2020년 응답 패턴은 북한 주민과 매우 유사하다.
 - 상당한 거리감을 보이고 있다.
- 이주 노동자의 경우 매우 낮은 응답률이 나타났다.

탈북자에 대한 태도		북한 사람	남한 사람	북한 출신 남한 사람	재외동포 /한민족	기타/모름/무응답
19-29	2010	43.5	7.0	46.5	2.5	0.5
	2015	26.5	11.0	51.9	10.5	0
	2020	29.7	13.2	49.5	7.7	0
30대	2010	42.6	9.2	44.9	2.0	1.3
	2015	23.8	19.6	42.3	14.3	0
	2020	21.7	14.9	52.8	10.6	0
40대	2010	36.5	12.4	49.8	0.5	0.9
	2015	21.2	12.3	42.5	23.6	0
	2020	15.8	14.7	55.8	13.2	0.5
50대	2010	42.3	12.7	44.4	0	0.5
	2015	15.3	15.3	43.9	25.5	0
	2020	20.7	14.6	46.0	18.7	0
60대	2010	50.8	14.9	32.8	1.0	0.5
	2015	26.8	17.5	36.8	18.9	0
	2020	26.8	17.3	39.3	16.5	0
전체	2010	42.9	11.2	43.9	1.2	0.8
	2015	22.8	15.2	43.1	18.8	0.1
	2020	23.2	15.2	47.8	13.8	0.1

- 전반적으로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커져 왔다.
 - 55.1 → 58.3 → 63.0 (남한 사람 + 북한 출신 남한 사람)
- 세대별로도 증가 추세는 비슷한 양상인데, 상대적으로 60대 이상에서 수용의 정도는 낮았다.
- 19-29세 : 53.5 → 62.9 → 62.7
- 30대 : 54.1 → 61.9 → 67.7
- 40대 : 62.2 → 54.8 → 70.5
- 50대 : 57.1 → 59.2 → 60.6
- 60대 이상 : 47.7 → 54.3 → 56.6

연령	조사 시기	영토 인식		
		남한 지역	한반도 지역	한반도+만주
19-29세	2005	36.7	39.9	23.4
	2010	57.4	30.3	12.2
	2015	61.9	23.2	7.2
	2020	73.2	21.0	5.7
30대	2005	30.0	40.8	29.2
	2010	48.1	37.6	14.3
	2015	50.3	33.3	9.5
	2020	66.0	27.0	7.1
40대	2005	21.4	50.0	28.6
	2010	47.1	34.1	18.8
	2015	48.1	36.8	8.5
	2020	60.8	32.7	6.4
50대	2005	13.9	59.7	26.4
	2010	46.9	39.4	13.8
	2015	41.3	41.8	11.2
	2020	54.0	33.0	13.1
60대 이상	2005	24.0	56.7	19.3
	2010	43.5	41.9	14.5
	2015	45.2	38.6	11.0
	2020	59.4	30.8	9.8

- 영토 인식이 지난 15년 동안 '남한 지역'에 국한된다는 응답이 많이 높아졌다.
 - '한반도 + 만주 지역까지'라는 응답은 전 연령층에서 일관된 형태로 낮아졌다.
 - 20-30대의 경우 한반도 지역이라는 응답도 일관된 형태로 낮아진 반면, 남한 지역에 국한된다는 응답은 꾸준히 높아졌다.
- 2020년 경우
 - 20대 73.0%, 30대 66.0%, 40대 60.8%, 50대 54.0%, 60대 이상 59.4%
 - 20-30대 젊은 연령층에서 남한 지역만을 대한민국으로 보는 인식이 특히 높았다.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4
상수		2.59*	2.25*	1.83*	2.92
사회경제적 변인	성별 (남성)	-0.23	-0.23	-0.21	-0.24
	나이	-0.02*	-0.02*	-0.02*	-0.02**
	학력	-0.16**	-0.15**	-0.15**	-0.09
	가계소득	-0.07	-0.08	-0.07	-0.07
국가 자긍심	민주주의		-0.08	-0.10	-0.11
	국제 위상		0.07	0.07	0.08
	경제 성취		0.15	0.13	0.10
통일 인식	통일 필요성			0.13	-0.06
	통일 남한 이익			0.03	-0.14
북한 인식	평소 북한 인식				-0.67*
	북한 주민 인식				0.32*
R ² (분류 정확도)		0.04 (61.9)	0.04(61.9)	0.04(61.4)	0.16 (67.6)

종속변수 : 우리 영토 0- 한반도 (혹은 만주까지) 1- 남한 지역

* p<0.00 ** p<0.05

- 이항 로지스틱 분석
 - 사회경제적 변인 : 성별, 나이, 학력, 가계소득
 - 국가 자긍심: 민주주의, 국제 위상, 경제 성취
 - 통일 인식: 통일 필요한가, 통일 남한에 이익?
 - 북한 인식: 북한 인식(우리-형제-이웃-남-적), 북한 주민 (남이다 – 남에 가깝다, 한국 국민에 가깝다, 한국 국민이다)
- 분석 결과, 북한 인식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 북한에 대한 거리감, 북한에 대한 거부감, 북한과의 일체감의 약화가 남한 지역에 분리된 정체성 형성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 국가 자긍심, 통일 필요성은 영향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경제적 변인 중에서는 연령 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젊을수록 남한 만의 분리된 정체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 요약
- 한국인의 정체성 조건이 15년 동안 강화되어 왔다.
- 외부 출신의 사회 구성원에 대한 수용 정도도 낮아졌다.
 - 특히 이주 노동자에 대한 수용 정도 매우 낮아졌다.
 - 그러나 탈북자에 대한 인식은 다소 개선되었다.
- 남한으로 영토가 국한되어 있다는 인식이 높아졌고, 특히 20-30대에서 이런 인식이 높아졌다.
 - 로지스틱 분석 결과, 이런 인식은 북한에 대한 거부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민국 민족주의”가 강화되어 가는 추세를 보였다.
- 그러나 배타성이 강해졌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